

모바일 상품권 환불 쉬워진다



정부, 가이드 라인 마련...유효기간 늘리고 절차 줄여

신분증·통장 사본 제출 대신 휴대전화 인증으로 가능

정부가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모바일 상품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유효기간을 늘리고 환급 절차는 줄여 휴직조각이 되는 상품권을 줄이기 위해서다. 1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환불할 때도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휴대전화요금 청구서는 물론 수신자의 환불 동의 서명까지 받아오게 하는 일부 업체의 환불 규정은 소비자가 환급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정부가 나선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모바일 상품권 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오는 23일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권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SK플래닛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발신자가 환불받고자 할 때 수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금액에 비해 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

다. SK플래닛은 앞으로 상품권을 결제할 때 환급 대상을 정해 발신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에는 수신자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환급을 신청하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 휴대전화요금 청구서 등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측이 계좌정보 입력 문자를 직

접 보내 서류 없이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KT엠하우스도 이달 23일부터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받는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로 웹상에서 환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권을 살 때 환불받을 대상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T엠하우스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돌려주는 '자동환불기능'을 2012년 도입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발신자가 자사 가입자인 경우 별도 서류 없이 환불을 해줄도록 하고, 수신자 환급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길어진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커피, 케이크 등으로 바꾸는 물품교환형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일정 금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형은 대부분 3개월인데 앞으로는 각각 6개월과 9개월로 길어진다.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잊은 사이에 유효기간이 지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업계와 정부는 이처럼 관련 규정이 개선되면 고객들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뒀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지고 있어 미사용 금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미환급률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유효기간이나 환급 절차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협의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가전·자동차 '부품 보유기간' 있으나마나

TV나 냉장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업체들이 '부품보유기간'을 무시하고 부품을 일찍 단종시켜 수리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있

으나마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권슈머리서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부품보유기간인 예도 부품이 단종돼 수리를 받지 못한 사례가 432건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12년 157건이던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 191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84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가전제품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IT기기는 118건, 자동차는 34건이었다.

가전제품 중에서는 TV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48건), 세탁기(28건), 청소기(26건), 정수기(22건), 전자레인지(18건) 등 순이었다.

IT기기 중에서는 헤드폰과 스피커 관련 민원이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4%(27건)에 달했다.

이런 피해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단종된 제품의 부품을 보유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후서비스(AS)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전은 6~8년, IT제품은 3~5년, 자동차는 8년의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했지만 권장사항일 뿐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 때문에 5~10년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제품을 구입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고 새 제품을 사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품 단종으로 수리를 못할 경우 업체들은 제품의 잔존가치에 구입가격의 5%를 가산해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감가상각을 통해 상당한 보상금이 얼마 되지 않아 새로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예를들어 내용연수가 7년(84개월)인 TV를 300만원에 구입해 5년(60개월)을 사용한 뒤 부품이 없어 보상을 받는다면, 구입비용에서 감가상각비(214만원)를 제한 86만원에 구매가의 5%를 가산한 101만원만 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나 보관 정도 등에 따라 잔존가치가 크게 달라져 사전처럼 일괄적인 계산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연합뉴스

세제, 적게 써도 충분

농도 0.1% 이상이면 세척 효율 변화 없어

설거지를 할 때 세제제를 적게 써도 충분한 세척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무턱대고 세제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릇을 더 잘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척제 농도별 세척효율과 행균 정도별 세척제 잔류량을 조사해봤다. 그 결과, 세척제 농도가 0.1% 이상이면 세척 효율이 더는 증가하지 않았다. 세척제 농도가 짙다고 해서 세척력이 더 올라가진 않은 것이다. 식약처는 "이런 조사결과로 미뤄볼 때 무조건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식기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 말라붙지 않도록 즉시 10분 이상 물에 불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기를 불리는 시간이 길수록, 물의 온도



가 높을수록 식기를 씻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행균 때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사용해 15초 이상 행구거나, 물을 받아서 쓸 때는 물을 교환해 가며 3회 이상 충분히 행구면 세척제 성분이 남아있을 걱정을 하지 않고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비경제적 규정 탓에 '수리 불가' 민원 늘어
최근 3년간 432건...자동차, 분쟁 건수 급증

품목	기간	연수	보상 규정	
TV·냉장고	8년	7년	잔존가치액+최고 구입가의 5% 가산	
에어컨·보일러·전자레인지·정수기	7년	7년		
전기압력밥솥·가스레인지	6년	6년		
세탁기		5년		
선풍기·전기장판·카메라·내비게이션	5년	5년		
PC·노트북·휴대용 음향기기	4년	4년		
휴대전화		3년		
전기면도기·전기조리기기·헤어드라이어	3년	3년		
자동차	8년	6년		잔존가치액+잔존가치액의 10%가산

출처:공정거래 위원회

일조 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 수원동 1층 상가 매매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매가 3억
- 금호동 1층 임대(보증금 1억 월400만) 시비 있음
- 강산동 원룸 동남2차 뒷편 엘리베이터,풀옵션 편백 3월중공 매매가 7억3천
- 각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매가 6억9천

나주혁신도시

-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매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매 116,000만원
- 나주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매 16평 2층 23,000
-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자택지 88평 매매가
- 나주 부곡동 토지 매매 세필지 매매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 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 근생용지 다량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계림동 4차선로점 상업지 571㎡(173)공사까지 7억 은행 5억 5천 5천선 매도 6억 2천
- 월산동 2층주택 농산물유통사업단지 196㎡(59) 건물 162㎡(49) 큰 이마트와 교환 가능 1억 5천
- 광주은행본점부근 대안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사까지 11억 6천 매도 11억
- 계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6㎡(1200) 18억 2천

투자 / 매도 / 교환

- 쌍촌역부근 고시원 대지 272㎡(87) 건물 493㎡(149) 보증금 3천에 월 600만원의 매도 5억 2천
- 차평중학교부근 대지 386㎡(117) 건물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 2천에 월 600선 수익 5억2천
- 담양군 대저면 관박리 8553㎡(2587)공정청고도주택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천
- 무인택 적합 부지 나주시 송림동 상업지 1666㎡(504) 대출 13억 1천 매도 대출상주교 3천만원
- 쌍촌동 5.18공원2차부근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기계와 인접 원룸 15개 5억 6천
- 농성동 소방도로점 대지 206㎡(62)공사까지 매도 8500
- 보성북문산 68430㎡(20700)교환가능 1억 3천
- 조산대 앞 동양동 대로변 5층 건물 대지 318㎡(96) 건물 736㎡(228) 상가와 원룸들 18개 보증금 1억2천선 월 500선 수익 8억7천
- 쌍촌동 나대지 295㎡(89) 원룸 적합 1억7천
- 나주시 신포면 별장부지 790㎡(234) 매도 1억천

임대

- 쌍촌동 운천역부근 원룸촌지역 1층 234㎡(71)오리실 호프집 대형식당 PC방 등 적합 보증금 5천에 월 180선 매정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1층 구분면적 85㎡ 매3.5억(보5천, 월15만포함)
- 셀프세차장 640㎡ 8억5천(방문상담요망)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렌치아일랜드)
- 서구 쌍촌동 5층 상가주택 6.8억(보 2100만, 월400만포함)
- 서구 풍암동 대로변 3층건물 매 9.7억(보5천, 월520만포함)
- 서구 차평동 5층건물 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상무, 첨단 대형몰건 다수보유(매수상담환영)

대지/전답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760㎡ 매매 16억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54억(병원최적)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5,000㎡ 매매 12억(청고적합)
- 북구 용전동 생산녹지 답 7,900㎡ 매매 29억(4거리코너)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답 2,000㎡ 매매 6억5천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29,800㎡ 매매39억
- 서구 마북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0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 세하동 청고 1,590㎡(간234㎡) 매매 7.2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매의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워케이션과 어울린 명소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습주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로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원룸 금매

대지 280㎡ (80.5평)
건평 190평

신축 2012년 준공
방금 18개

월임대수입 540만

은행용자 1억4천만

매도가격 3억3천만

나주시 이창동 택지지구내
010-3200-3162